

# Economy Brief

## 국내 수출, 반도체와 함께 대중 수출 모멘텀 주목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 Check Point

최근 수출 경기와 관련하여 고무적인 두 가지 현상: 반도체 슈퍼 수출 사이클 지속 속에 1) 일 평균 수출 규모 증가세 지속, 2) 대중국 수출 모멘텀 회복

중국 경기 회복과 AI 투자 확대 등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 회복 흐름 지속 예상

### 반도체 수출, 이상무

5월에도 반도체 슈퍼 수출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 5월 1일~1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149.8% 증가, 여전히 강력한 수출사이클을 유지 중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수출 역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예상된다. 5월 1일~1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43.7%를 기록했다. 전월 1일~10일 수출증가율 36.7% 보다 상대적으로 수출증가율이다.

반도체 슈퍼 수출사이클 지속 속에 최근 수출 경기와 관련하여 고무적인 현상은 두가지다.

첫째, 일 평균 수출 규모의 꾸준한 증가세이다. 반도체 수출 영향이 크지만 1월 28억 달러였던 일 평균 수출규모는 4월에는 35.8억 달러까지 급등했고 5월 1~10일까지 일 평균 수출 규모는 36.9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물론 5월 전체 일 평균 수출액은 1일~10일까지 일 평균 수출액보다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높은 일 평균 수출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은 수출 모멘텀이 강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당사가 늘 강조해왔듯이 일 평균 수출액과 코스피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음을 고려할 때 일 평균 수출규모 증가는 증시에도 긍정적 신호다.

둘째, 대중국 수출 회복이다. 그 동안 중국 경기 둔화와 한-중 산업 경쟁력 격화 그리고 미-중 갈등 혹은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인한 대중 수출 부진으로 국내 수출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대중국 수출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 지난 4월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62.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5월 1일~10일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81.8%로 대미 수출증가율 17.9%를 압도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 회복에도 반도체 수출이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중국내 AI 관련 투자 등이 확대되고 있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대중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중국 무역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제품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 즉 수출 경기사이클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 즉 K자형 수출사이클은 옥의 티라 할 수 있다.

### 중국 경기 회복과 AI 투자 확대 등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 회복 흐름 지속 예상

국내 경기와 주식시장이 반도체 업황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수출 경기 모멘텀 지속 여부를 당분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미국내 AI 관련 투자가 예상보다 강하고 중국마저도 AI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수출 경기는 상당기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대중국 수출 모멘텀 회복이 국내 수출 경기에 우호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금주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완화된다면 중국 수출 및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국내 대중국 수출 모멘텀 강화라는 나비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5월 1일~10일까지 주요 수출품목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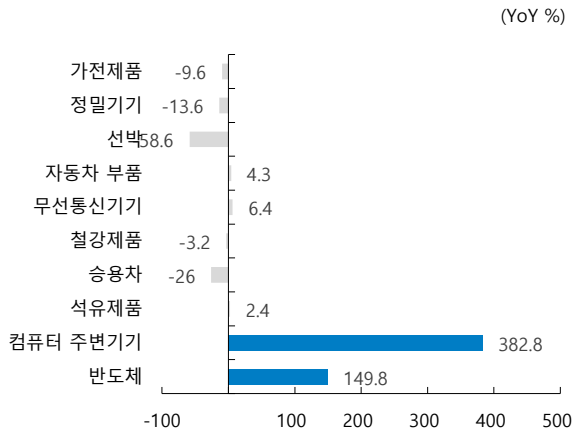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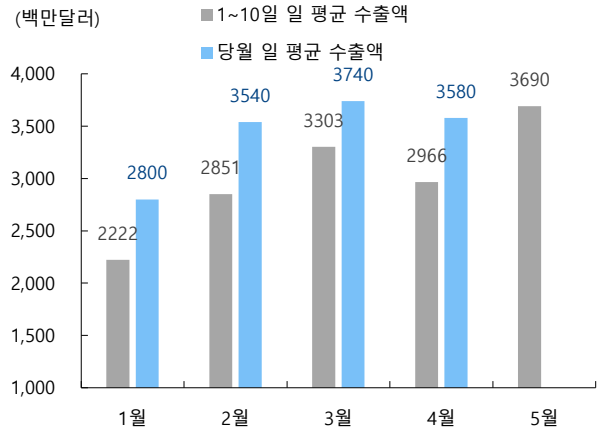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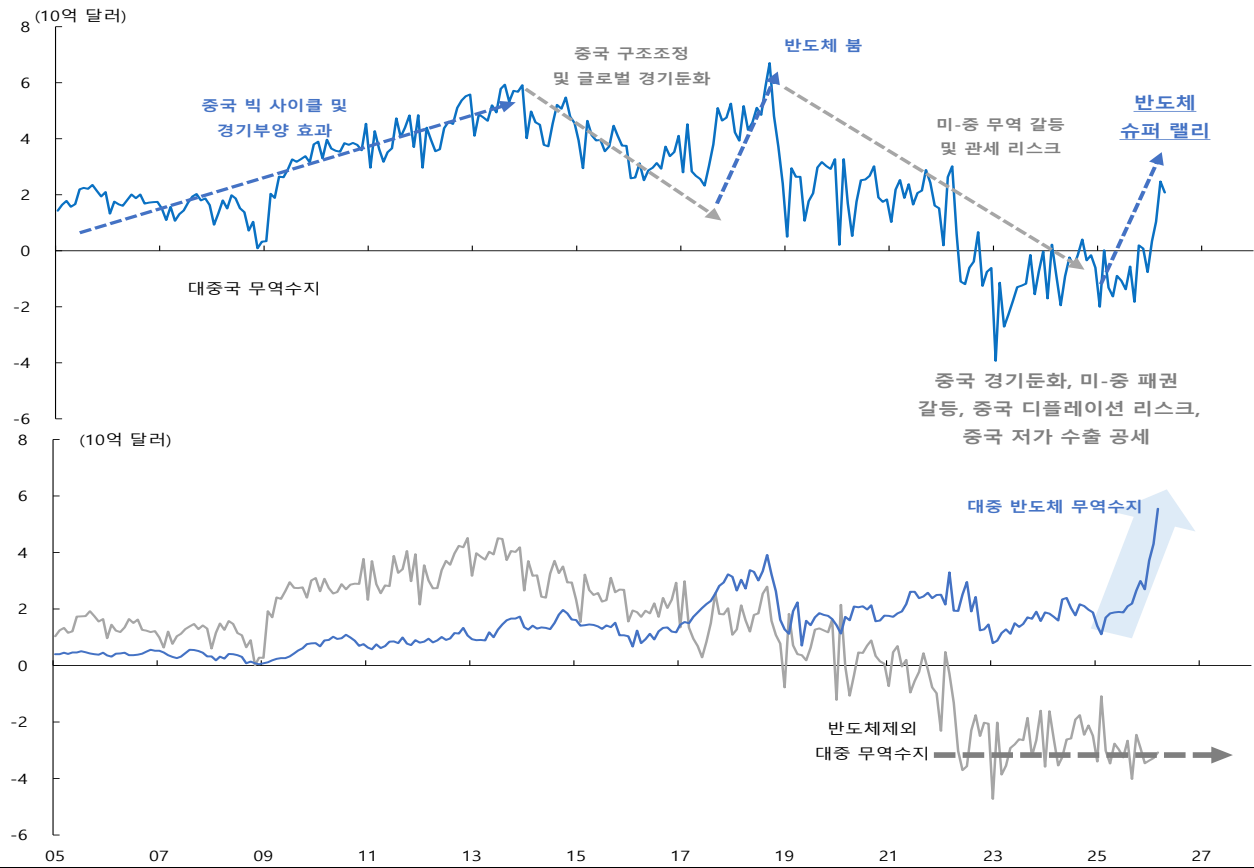


그림2. 올해 일 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관세청,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국 수출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일 평균 수출액과 코스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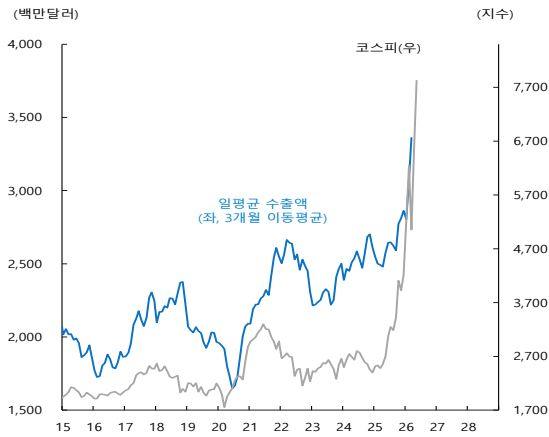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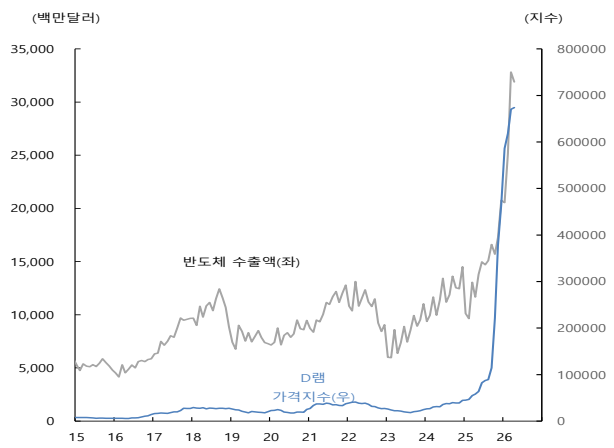


그림5. D램 가격지수와 반도체 수출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